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가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501호

서기 2004년 11월 24일 (음력 10월 13일) 수요일

29

법공양 페이지

밝은 마음으로써 지혜롭게 마음을 내라

오늘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왜 하나냐구요? 부처님이 참나에 나투시면서 풀 한 포기에도 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달라고 하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도 자동적으로 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분이 성불을 했고 열반계를 마쳤다 해도 그것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몸도 내 몸 아닌 없이 나투시고, 어느 마음도 내 마음 아닌 없이 나투시고, 어느 자리도 내 자리 아닌 없이 나투시고, 어느 모습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다고 하신 까닭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어느 것이 될 때에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인 것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하고, 아들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고, 형 노릇 하고, 사위 노릇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 같다구요. 지금 금숙이 아니 쓰이는 데 없고 전택도 아니 쓰이는 데가 없듯이 부처님 마음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금숙이나 전택과 같아서 어느 한 군데도 안 쓰이는 데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용도에 내가 썼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버지다, 아들이다, 형이다 하고 이름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부처님의 마음은 아축도 되고, 아미타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칠성도 되고, 산신도 되고, 용신도 되고, 약사도 되고, 지신도 되고, 신중도 되고 아니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한 분을 모셔 놓은 것은 모르는 중생들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며, 방편으로 모셔 놓은 그 자체를 실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요, 내 마음이요, 내 생명이요, 들이 아닌 까닭에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조성이 된 부처님 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이 다 거기에 포함 돼서 나고 든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한 분만 모셔 놔도 족합니다. 공부하는 데는 한 분을 모셔야 마음을 한데 모아서 혼란스럽지 않고 잘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방생인데, 예전에 물이 오르고 다시 내릴 때에 지렁이, 미꾸라지 또는 남생이들이 그냥 산에 떨어지거나 길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마는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님네들이 물 바깥으로 떨어진 생명들을 위해서 그곳에 담자 가지고 물에다 놓아 주었는데 그것이 유래가 돼서 방생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전된 이 시점에서

가뭇... 그러나 중간쯤 가서 죽고, 중간도 못 가서 죽고 이겁니다. 방생을 한다면서 그 무슨 심술긋은 놀부 짓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고기를 우정 잡아 가지고 놓아 주는 방생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천도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조상은 육(肉)의 조상이나, 밥의 조상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식이 물에 빠지면 부모는 자기가 물에 빠져 죽더라도 그 자식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지 않는 마음, 조건없는 사랑입니다. 마음이 적든 크든 사랑하는 마음, 조건없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상은 다 한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자리가 아니라"라고 한다면 한자리가 아닙니다. 생각이 라는 게 얼마나 운명적이고 묘하고 광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생각 하나가 구명에 빠뜨리고,

있어서 자기가 차린 것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고 차려 놓는 것이 열만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조상들이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허공 전체가 내 것 아님이 없이 딱 하나로써 해 놓는다면 전체 들어가는 그 광대무변한 법을 조상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없어집니다.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것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기 때문에 사랑, 의리, 도의, 질서를 벗어 나지 않고 역력하게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의 작은 마음에서 정성스럽게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네가 더 냈느니 내가 더 냈느니, 너는 마음에도 없는 것 했느니 말았느니 하고 서로 말다툼을 해 가면서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나마도. 그건 있을

고 해도 안 지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천도제를 지냈는데 제사는 왜 지내?"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부모한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에도 감사한 은혜가 있고 국인의 은혜, 일체 만물의 은혜, 하다못해 들의 은혜, 식물의 은혜... 모두 은혜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은혜를 포함해서 한마음으로 돌글리는 마음으로써 참다운 생각을 한 번 한다 면 삼만 번 절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개선해 나가면서 마음으로써 발전을 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물리가 터지게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스님네들이나 여러분이나 모두 그러합니다. 스님네들은 부처님의 대리로서, 여러분이

즉 자재천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경리과에까지 하달이 되는데 경리과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 때 이렇게 했는데 나갈 때는 이 통장을 찾아 가지고 나간다는 기록까지도 다 기록이 돼야 된다고 소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전부 우리가 알고 우주간 법계에 다 전달이 돼서 알고 있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가게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돈대로 물건 사지, 내가 물건을 사고 싶다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철칙입니다. 그러나 예수제는 형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란 말입니다.

다섯번째는 초파일 등입니다. 많은 사찰에 가 보면 돈 많이 내는 사람은 큰 등, 돈 적게 내는 사람은 작은 등,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렇게 합니다만, 인간의 생명은 다 똑같듯이 이것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등은 누구냐가 다 똑같이 달아야 합니다. 자기네들이 어떠한 예고나 용도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할 뿐이지, 왜 얼마 얼마 정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스님네들은 남들이 얼마만큼 아프고 어떠한 용도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본인은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병고에 시달린다, 내가 취직을 못하고 돌아서 가정이 살기가 딱막하다 등등... 여러 가지로 다가왔을 때에 자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거짓이 없이, 자기가 처음 쓰레기가 몇 차일 때 불편이 되면 내고 처음 쓰레기가 몇 차라 할지라도 어려워져 낼 수가 없을 때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 해서 등을 켜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얼마라도 정성들여서 말이에요. 그러나 등은 똑같아야 하고 정성은 정성대로 여러분의 차원대로 지극하게 하시는 게 바로 사월 초파일 등입니다.

마음의 밝음! 마음의 등이라는 것은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서 온몸 나무가 쓰러지고 불이 다 꺼져도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등을 켜십시오. 이러한 등을 켜시는 것이 우리에게 공덕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갖게 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게 되고 세세생생에 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그대로 행하시면 이 시대에서 아주 빠지지 않는 삶을 누릴 거고, 빠지지 않는 자유인일 것입니다.

여섯번째는 부처님 설법입니다. 스님네들도 알아 봐야 할 일이고 또 스님네들을 따라가는 분들도 알아 봐야 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의 용어를 방편으로 쓰시고 말씀하셨는데 한문으로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님네들은 반드시 그것을 끌어내려서 뜻으로 풀이해야지 글자풀



그림 · 최주현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시공을 초월해서 빨리 돌아가는 데

한번 생각해서 마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생이란 물속에 넣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을 잃고 바깥에 나신 것을 물에 넣어 주는 것도 방생이요, 돈이 없어서 방을 얻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은 사람을 돕는 것도 방생이요, 먹지 못하고 굶는 사람에게 먹여 주는 것도 방생이요,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취직시켜 주는 것도 방생이요, 어려울 때에 무주상 보시로서 도와 주는 것도 방생입니다. 어느 것 하나 방생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노는 고기들을 잡을 때 죽이고, 잡아다 놓는 데 죽이고, 또 물에 갖다 넣는 데 죽입니다.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만, 8·15 해방되기 이전에 만광으로 불들려 가고, 징용으로 불들려 가고, 정신대로 불들려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8·15 해방이 되니까 쏟아져서 자기네 집들을 찾아서 삼지방으로 흩어져서 그냥 차 꼭대기에도 타고, 타지 못한 사람은 걸어들어서 무수히 죽어 갔습니다. 그와 같이 고기도 자기 놀던 집이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대로 진흙물이 자기 집이요. 어떤 고기든지 물에 넣어 주면 뭍십 리라도 자기 놀던 데를 찾아가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집 찾아

부도가 나서 망하게 하기도 하고, 생각 하나가 회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생각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활력을 동그렇게 하나 해서 놓고 초항 물을 놓고 지내게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떡 공양을 하는데 떡 공양 하면 그 떡 하나로 인해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먹고도 되납니다. 즉 말하자면 수박을 먹고 씨를 뒤심으면 또 수박이 열리고 씨가 남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떡 공양입니다. 공양,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다. 원자가 입자가 돼서 수요가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어도 다 통신이 되고 전달이 되어 어울려 돌아가면서 원자가 되고, 입자가 되고, 분자가 되듯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리가 그렇게 많아도 다 통신이 돼서 내려 먹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들도 부처님 공양 한 그릇 할 때에 벌써 공양입니다. 마음의 향! 누가 뭐라고 더 먹고가 없이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잔뜩 차려 놓는 것은 사람이 살던 습관에 의해서 부모를 위한다와 차려 놓습니다만, 그 차려 놓은 것만 영광이 되고 그 외의 것은 보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은 이렇게 차리고 저렇게 차렸다는 마음이

수 없습니다. 나를 길러 준 은혜, 낳아 준 은혜를 생각해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 향을 올려라 이겁니다. 밝은 마음으로써 지혜롭게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향입니다. 마음을 내어 떡 공양을 올려서 모두가 부처님 한자리로 올려질 때에 통신이 되어 모두가 다 받게 됩니다. 다 내 것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생각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모두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명이 저절로 벗겨진다고 이 소립니다. 돌아가신 부모들도 위로하고설치고 묶어 있던 무명이 저절로 벗겨져서 한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업식, 인과로 인해서 죽어서도 이 몸 속에 들은 중생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렇게만 한다면 어느 사이에 공덕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묶였던 무명이 무너지면서 자유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탁을 치고 열불만 해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많이 차려 놓는다고 해서 영광들이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살아오면 습 때문에, 그 습으로 인해서 마음이 떠나질 못하고 아는 집으로 들며 반천이나 국냄새를 맡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자손들을 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집에서 제사 지낼 때에도 향 초 물을 차려 놓는데 물은 지혜로운 마음을 말하고, 초는 밝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써 아주 발전적인 마음을 내는 게 향입니다. 마음의 향! 그런데다가 떡 공양으로 제사를 올리면서 '일체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말려 놓으면 그대로입니다. 제사는 부모님이 승천을 했다

업보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거기 먼지 앓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볼 때는 방편으로는 부처님의 대리 역할이지만 진실로는 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치를 그대로 받아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수제들을 하는데 예수제를 열론 쉽게 말하면 이다음에 목돈을 쓰기 위해서 은행에다 돈을 예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치한 돈을 은행원들이 통장예다가 넣어 주면 됐지, 그 돈을 쪼개서 음식을 만들고 맛새 옛새 이해까지 온통 아던들을 해 봤자 오히려 그 예치한 사람들 손해만 납니다. 예치를 한 돈에서 부셨으니까요. 오히려 예금을 찾아갈 때에 예금한 돈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줄어도 아주 많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인제는 이렇게 해 왔으니까 내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러니 공덕이 되겠습니까? 요다음 나올 때에 예금통장은 커녕 아무것도 가져 나올 게 없어져요. 돈이 내 집에 들어온 거니까 마음대로 해 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 쓸 데다가 써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덕이 안 된다 이겁니다. 해 주는 사람과 해 달라는 사람과 같이 맞아와 붙이 들어오게 돼 있죠.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상부 예까지 연락이 갑니다.

이만 해서도 아니 되고 글자풀이를 해서 말만 해 줘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 또 한문으로 돼 있으면 남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감응도 되지 않겠음 그냥 읊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 단 있던데, 뜻으로 풀이 요리를 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맛있게 집어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 생방을 들로 보지 않는 설법을, 그대로 어느 사찰에서나 근본 도리를 가르치면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자기로부터지 누구로부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터 알아야 하고 자기 몸통이 속의 자기 중생들이 먼저 깨어나야 자기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는 독불공을 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절도 많겠지만 대부분이 정성을 드러오면 개개인에게 독불공을 드러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 항 물 떠 놓고 사시마지 때에 등잔으로 공양 한 그릇 올리면, 늦게 왔든지 일찍 왔든지 자기의 소원은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님네들이 대신 밥 먹여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밥을

▶▶▶ 30면으로 계속

일체 생명 어느 것 하나 佛 아닌 게 없어

☞ 29면에서 계속

먹어야 배가 부른 거지, 스님네들이 대신 먹어 준다고 해서 여러분 배가 부릅니까. 그러니까 스님네들은 공양을 올리면서 사시마지 때 통신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소원대로 그 생각을 주인공에다 맡기면서 관하는 마음자체가 돼야 되겠죠. 우주간 법계, 일체 제불에게 모두가 전달이 돼서 한 찰나에 나투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스님네께 득불공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고 조른다면 그건 너무나 뒤떨어진 의식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이며,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저금통장 얘길 했지만 여러분이 초나 향이나 쌀이나 보시금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이 가져와서 여러분이 하고 간다면 한 푼도 예누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정 스님네에게 득불공을 해 달라고 한다면 그 열불을 해 주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가 있어야 하니까 자기네한테 공덕이 갈 것이 없어지는 거죠. 쌀 한 되 가져왔다 하면 반 되를 스님네한테로 가고 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깊이 하셔서 스님네가 여러분에게 내주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마음이 한마음으로 찰나찰나 쉼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다니지 어찌 더러운 물이 새 물로 안되겠는가 말입니다.

업이 본래부터 불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를 가려면 낱자를 봐서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잠재해 있을 뿐입니다. 남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보고 듣고 '손이 있는 낱 가서 안 된다는데...' 하고, 삼재가 들었으면 '사람이 아프고 죽을 수도 있고 예고가 닦힌다는데...' 하는 그 관습이 잠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모두 잠재해 있으니까 이사를 갈때도 걱정, 삼재가 든다고 걱정, 또 보기는 왜 보는지, 보고선 그냥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약한 데에 들어오는 거죠. 싸우는데 약한 사람이 지는 거지, 강한 사람이 집니까, 약한 사람에게 칼이 들어오지, 강한 사람에게 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약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속에 든 의식들도 다 약하게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니까 세균이 들어오고, 열계성이 들어오고 이거는 내 편이구나 하면서 그냥 낱의 집을 막 뺏는 거죠. 이 점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두 그렇게 약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밥은 내가 먹어야 배가 부릅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내 발로 내가 짊고 일어나야 된다. 누가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대신 먹어 준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이 잘 침착하게 생각하셔서 그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째는 부적이냐 관상입니다. 이 부적 유래를 본다면, 예전엔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도 지금처럼 많았던 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한 십 리 나가야 또 마음이 있고 이럴 땐니까. 그러던 시절에 스님들이, 산 부처님들이죠. 길을 가시다가 보면 마음에 필연적으로 사태가 나서 다 죽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모르니깐 방편으로 종이로 써 가지고 이것을 붙이고 '이 집을 어느 날, 어느 시에 파신을 해라' 이렇게 일러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적을 믿게 됐죠. 스님을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방편을 쓴 거죠. 스님의 말을 안 들으면, 즉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 데 합쳐지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 데 합쳐지게 한 것이죠. 마음과 마음을 한 데 붙이기 위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편을 쓴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장사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얼마짜리 얼마짜리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도깨비장난이요, 귀신짓이요 진정코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그 뜻과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지 못하는 소행입니다. 그리고 관상이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상을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관상도 좋아질 거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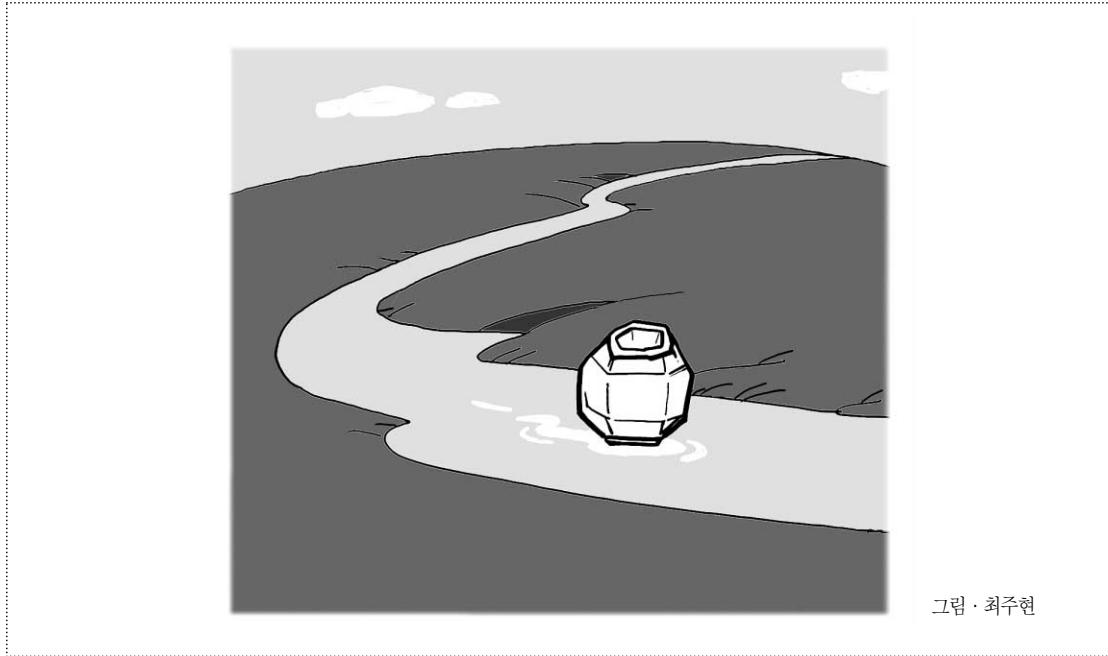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떠한 경우라도 그 자리의 작용이니까 믿고 맡기며 관해야 합니다!

상도 좋아질 거고, 족상도 좋아질 겁니다. 심상 하나만 좋으면 잘나고 못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상 하나가 좋으면 얼굴 자체도 웃게끔 되고 심상을 잘못 쓰면 손잡고 나쁘게 나가죠. 걸음걸이도 나쁘게 나갑니다. 나쁜 일 하러니까 막 들어가죠.

그러니까 족상이 나쁜 거고, 수상도 나쁜 거고, 관상도 나쁜 거죠. 올바르게 생각을 잘 해서 심상 하나만 좋아진다면 관상도 수상도 족상도 다 좋습니다. 이래서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족상이나 수상이나 관상이나 볼 게 아니라 심상 하나만 진짜로 잘 보고 잘 쓴다면 세세생생에 공덕을 이룰 것이다 이런 겁니다. 모든 게 생각해 보면 허탕한 짓들을 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보면 병이고 안 보면 약이예요. 모르거든 아예 보지 마세요. 차라리 모르면 편안하게 마음을 돌음으로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이구, 올해는 뭐가 또 언짢지는 않을까?' 하고선 온통 관상도 보고, 부적도 사고, 점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것이 세 가지라면 언짢은 건 일곱 가지나 돼요. 누가 언짢고, 누가 좋고 이러니까 그냥 나올 수는 없죠. 그런데다 그냥 나올 수 없어서 주고 나오는 건 또 좋아요. 와서까지도 뇌리에 알뜰알뜰하게 잠재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아이구, 그걸 안 해서 그렇구나. 아이구,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하고 끄달리니 인생을 살아야 하기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주 올바르게 먹고 살기도 급급하고 참고 통스려운데 하물며 왜 굵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고통을 받느냐 이 소립니다. 예고나 질병이나 망상이 애당초부터 불어 있는 게 아닌

니다. 아가 말했듯이 여러분에게 잠재해 있는 그 관상 때문에 '아이구,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이래?' '에이, 그대도 죄를 많이 졌길래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예고가 생기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마음이 업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시공을 초월해서 빨리 돌아가는데 업보 불을 자리가 어디 있고, 마음이 쉼 자리가 어디 있고, 거기 먼지 없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이 정맥, 동맥이 푹푹 딱딱 딱 딱 돌아가듯 돌아가는 판국에 거기 어디에 불을 자리가 있느냐는 소립니다. 다만 여러분이 살아나오는 관습으로 인해서 잠재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또 바깥에서 보고 듣고 일어나는 그 자체를 망상이냐 업보다 어려서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자유 나와야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나와야 목적이 아니고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아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목적이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것더러 망상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생중생들이 생각을 나오게 하는 건데 그 나오게 하는 것을 업보나, 무슨 망상이냐 하고 퇴박을 하니까

'에이, 망상이냐 그러는데 망상 좀 실컷 해 봐라!' 이러곤 그냥 망상으로 밀어 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회사일 다하는데 극진히 정성스럽게 하는데도 '이 도둑놈, 너는 그런 것도 못해!' 하면서 만 날 지청구를 주면 정말 도둑놈이 됩니까. 그와 같습니다.

허어튼 여러 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불교라는 단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일체 생명 어느 것 하나 '불' 아닌 게 없으며 말로 전달, 뜻으로 전달, 통신으로 통신, 마음과 마음이 전달하며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단어가 너무나 실감적이고 실현적이고 실현적이고 아주 타당한 이름이죠. 잘못된 거라면 예전에 조선시대 때에 탄압을 받아서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놓으면 어려우니까 여기도 모셔 놓고 저기도 모셔 놓고, 방편으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개선을 해야죠. 잘못된 것은 고쳐 가면서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어떠한 경우라고 해도 그 자리의 작용이니까 믿고 맡기며 관해야 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세요.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8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관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인강판 슬라브, 사철,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승복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 고급 모직(울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 무명(역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조끼 60,000 두루막 170,000
-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솜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조끼 60,000 두루막 160,000
- 면 목욕하 누비(역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조끼 70,000 두루막 200,000
- 모직 특수수 누비(울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조끼 80,000 두루막 230,000
-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저이나 남방, 니트,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조끼, 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아름승복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당 하 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열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노 혈당 측정기 (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어느만큼 치료할 수 있다" (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권 1,000명)

- ☞ 인슐린 분비촉진, 탄성피로
-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 복용후 효과 없음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노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운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노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반부**

주른 뒤 상담전화 : 080-521-6666

간(肝) 이

간 지방간 원장환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저래 식(기아슬)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신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깊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달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깨끗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진탕비양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한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한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원기 97마니를 얹은 뒤 원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서 끓어오르면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기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고백 8~9이 걸린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